

인사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서로 서로 의지하여 존재합니다. 낯선 모습이지만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또한 수많은 관계로 이어진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지난 2011년 한국의 전통 문화 소개를 위해 처음 방문한 파리는 매우 낮익고 친근한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수 백 년이 된 건물들을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고, 그 거리를 지나가는 시민들의 모습은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과거의 역사와 문화가 그대로 간직되어 현대의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도시는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특히, 파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떼제공동체를 찾았을 때에는 소박하고 검소한, 그러면서 진지하고 숭고한 자세의 수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수행 공동체로서의 동질감과 함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치 한국의 사찰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인류가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오랜 종교 문화의 원형은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해 주었던 방문이었습니다. 문화의 교류가 중요한 것임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의 선명한 기억, 그리고 그 여운이 가시지 않은 채 다시 파리를 찾았습니다.

한국은 5천년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나라입니다. 문화 민족으로서의 자부심 또한 매우 높습니다. 한국 불교 1700여 년 동안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는 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시대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불교는 단지 특정한 종교가 아닌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한국의 전통 문화 중에서 사찰음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불교에서 사찰음식은 수행의 한 부분입니다. 음식 그 자체로만 본다면 자연의 맛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불교 수행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의식을 행합니다. 내 앞에 음식이 놓이기 위해 이루어졌던 수많은 인연들을 떠올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음식을 먹는 것은 단지 나만의 건강과 포만감, 욕망을 채우기 보다는 수많은 인연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며 또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찰 음식이 가진 정신을 현재에 되새기면, 음식의 재료를 생산하는 이와 음식을 만드는 이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이가 모두 신뢰와 배려의 관계로 이어져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며, 욕심과 욕망으로 인한 사회적 불균형과 갈등의 문제도 새롭게 인식될 것입니다. 쌀 한 톨에 온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사찰음식에는 생명 존중과 인류 평화를 기원하고 실천하는 의미가 깃들여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는 공동체의 가치를 담고 있기에 아름답습니다. 이는 비단, 한국의 것만이 아닌 모든 인류가 지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사찰에서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이 이러한 가치를 세계인들과 함께 실현하는데 작게나마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지금 세계는 각자의 처지와 입장만을 내세워, 갈등과 분열의 양상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를 보듬고 소중히 여겨 화합을 이끌어야 할 종교가 오히려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온 인류의 화합과 생명의 평화를 위해 종교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한국의 사찰 음식을 함께 맛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 모든 인연들의 소중함을 공감하는 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내 자신이 소중하듯이 내 옆에, 이 자리에,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나인 못 생명들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들인지 깊이 깨닫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자비로운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한국과 프랑스의 소중한 인연이 작은 불씨가 되어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는 환한 등불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불기2560년 10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